

# 해결사 복귀 후 연승...KIA 상승 시동 건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김도영 복귀 후 연승에 성공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 본격적인 순위싸움에 돌입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 지난주 1위 LG에 워닝시리즈 NC·한화와 홈에서 6연전 앞뒤 줄부상 내야 안정감 찾기 관건

‘천군만마’를 얻은 KIA 타이거즈가 홈에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선다. KIA가 새로운 한 주 안방에서 6연전을 치른다. 주중 NC 다이노스를 상대하는 KIA는 주말에는 한화 이글스와 맞대결을 벌인다. 극과 극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두 팀과의 맞대결이다. NC는 이호준 감독 체제로 새 판을 짜지만 9승 16패(승률 0.360)로 9위에 머물고 있다. 최근 10경기 성적도 3승 7패에 그치고 있다. 또 창원 NC파크에서 안타까운 관람객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도 창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안전 점검 결과 8월 일정과 맞바꿔 광주에서 열린다. 반면 한화는 가장 뜨거운 봄을 보내고 있다. 개막과 함께 최하위에서 고전했던 한화는 17승 13패(승률 0.567)의 전적으로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

근 10경기에서 단 두 번밖에 지지 않았다. 살아난 마운드 힘으로 연달아 1점 차 승리를 거두고 지난 주말 KT전 워닝시리즈도 장식했다. KIA는 지난주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승률 높이기엔 실패했지만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비로 화요일 경기를 선 KIA는 주중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2패만 기록했다. 두 경기에서 24실점을 하면서 마운드가 휘청거렸다. 패배는 주말 시리즈 첫 경기까지 이어졌다.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에 나선 KIA는 1-0으로 앞선 3회초 1-3 역전은 허용했지만, 4회말 4점을 뺏아내며 승리를 가져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6회초 양현종이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하면서 승부는 5-5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8회초 김선빈의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는 5-6 재역전패로 끝났다. 투타 베테랑의 아쉬운 플레이로 KIA는 3연패에 빠졌다. 1위 독주 중인 LG와의 승부였던 만큼 KIA의 부진은 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김도영이 ‘천군만마’였다.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던 김도영은 25일 다시 엔트리에 등록됐다. 그리고 복귀 첫날 대타로 나와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견제함을 과시한 김도영은 26일에는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장식하면서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답답한 공격 흐름을 보이면서 잔루만 쌓았던

KIA 입장에서는 해결사가 돌아온 셈이다. 하지만 타선의 완전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김도영이 돌아왔지만 ‘캡틴’ 나성범이 우측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27일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내야의 줄부상에 이어 나성범이 올 시즌에도 부상을 피해 가지 못하면서 이범호 감독은 다시 또 고민에 빠졌다. ‘변화의 외야’가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KIA는 나성범을 말소하면서 ‘루키’ 박재현의 이름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위기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만큼 ‘경험’으로 승률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박정우와 함께 김호영이 엔트리에 등록돼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박정우와 김호영은 각각 발과 수비라는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승리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마운드에서는 김도현의 역할이 중요하다. 운영철이 3경기 만에 재정비 시간을 보내게 됐고, 양현종의 부진도 길어지면서 김도현이 사실상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했던 김도현은 앞선 삼성전에서 한 번에 6실점을 했다. 홈런 포함 10피안타를 맞으면서 가장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5.2이닝은 책임졌다. 김도현은 29일 선발로 나서 NC 로건 엘런과 마운드 대결을 펼친다. 4일 한화전까지 4일타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 김도현의 효율적인 피칭이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고예림 영입 페퍼스, 이예림 내줬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아웃사이드 히터 이예림(27·사진)이 자유계약(FA) 보상 선수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유니폼을 입게됐다.

현대건설은 28일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30)의 보상선수로 이예림을 선택했다. 앞서 페퍼스는 FA 계약을 통해 A등급(연봉 1억원 이상) 고예림과 계약을 맺었다. 고예림의 소속팀이었던 현대건설은 전 시즌 연봉 200%와 보상선수로 이예림을 선택했다. 지난 시즌 FA 선수로 페퍼스에서 뛰었던 이예림은 보상선수로 친정 현대건설로 복귀한다. 이예림은 2015-2016 시즌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3순위로 현대건설에서 프로 데뷔를 했었다. 고예림을 내준 현대건설은 수비 보강에 초점을

맞춰 이예림을 선택했다. 리시브가 좋은 고예림이 페퍼스로, 위파워(태국)도 정관장으로 떠나자 현대건설은 공격보다 수비에 강한 이예림을 투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한편 페퍼스는 지난 시즌 수비력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안정적인 리시브 실력을 갖춘 고예림을 FA 선수로 영입했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고예림이 팀 수비에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페퍼스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및 드래프트, 타구단과의 트레이드 등을 통해 새 시즌을 위한 선수 구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컬링 전용 경기장 없어 타 지역 전훈 전남 컬링 장애인 선수단, 전국 제패

## 2025 하이코어배 코리아휠체어컬링리그 우승

전남 컬링 장애인 선수단이 '2025 하이코어배 코리아휠체어컬링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전 선수촌과 강릉컬링센터에서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 10개 팀이 참가했다. 대회는 휠체어컬링(혼성 4인조), 휠체어믹스더블컬링(혼성 2인조)으로 구성됐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와 맞붙었고 8세트까지 이어간 가운데 6-2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메달은 경기도가, 동메달은 강원도가 차지했다. 전남에는 컬링 전용 경기장이 없어 타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선

수들은 한계를 극복하고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 1-4위 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진출 자격을 얻었다. 선발전은 5월 9일 체력평가, 12-14일 기술평가, 16일 면접평가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김효주, 아깝다! LPGA 시즌 첫 메이저 우승

## 셰브론 챔피언십 '5명 연장'서 2위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28일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칼턴 우즈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파72·6911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인튀닝(중국),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린디 덩컨(미국), 사이고 마오(일본)와 동타를 이뤄 5명이 치른 연장전 첫 번째 홀에서 파를 써내며 버디를 잡은 사이고에 이어 준우승했다. LPGA 투어 통산 7승의 김효주는 3월 말 포드 챔피언십에 이은 시즌 2승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올해 4번째 톱10에 진입했다. 이번 대회 성적을 포함해 김효주는 CME 글로벌 포인트 1013.125점을 쌓아 1위로 뛰어올랐고, 올해의 선수상 점수는 2위(59점)가 됐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11위였던 김효주는 이날 3번 홀(파3) 보기로 초반엔 주춤했으나 6-8번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다. 경기를 마쳤을 때 공동 3위였던 김효주는 요동치는 선두권 판세 속에 결국 5명의 공동 선두에 합류했다. 정규 17번 홀(파3)까지 합계 8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던 쭈타누간이 18번 홀(파5) 그린 주변에서 치명적인 세 번째 샷 실수로 보기를 기록해 보기를 기록해 '5명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LPGA 투어에 따르면 5명은 메이저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연장전 인원이다. 김효주는 18번 홀에서 이어진 1차 연장전에서 침



김효주가 28일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즈의 더 클럽 칼턴 우즈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셰브론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 17번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하게 3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으나 버디 퍼트가 왼쪽으로 흐르며 파로 마무리했고, 이후 유일하게 버디를 속아낸 사이고에게 트로피를 넘겨줬다.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사이고는 3타를 잃고 있던 가운데 맞이한 정규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데 힘입어 연장전에 합류해 '호수의 여인'에 등극했다. 23세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6승을 거둔 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해 우승 없이 신인왕에 올랐던 사이고는 미국 무대 첫 승의 기쁨을 메이저 대회에서 누렸다. 우승 상금은 120만달러(약 17억2000만원)다.

3라운드까지 사이고와 공동 선두를 달리며 첫 메이저 우승 꿈을 부풀렸던 유혜란은 이날 버디 1개, 보기 7개로 4타를 잃어 공동 6위(5언더파 283타)로 밀린 채 대회를 마쳤다. 고진영은 이날 2타를 줄여 함께 6위에 자리했다. 2023년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이후 약 2년 동안 LPGA 투어 우승이 없는 고진영은 이번 시즌 8개 출전 대회 중 4번째 톱10에 올랐다. 최혜진은 공동 9위(4언더파 284타)에 올라 4명의 한국 선수가 톱10에 들었다. /연합뉴스